

그루지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7만 km ²	GDP	116억 달러
인구	4.6 백만명	1인당 GDP	2,629달러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Lari (GEL)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환율(달러당)	1.70

- 그루지야는 흑해 동남쪽 카프카즈산맥 기슭에 위치한 인구 4.6백만 명의 소국으로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및 아르메니아의 4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주로 철금속, 구리 및 금 등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 1991년 4월 소련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유지된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의 독재체제는 선거결과 조작 및 부정 의혹으로 인해 비폭력 시민혁명(일명 '장미혁명')으로 2003년 말 붕괴되었음. 이어 2004년 대선에서 '장미혁명'을 주도한 미하일 사카쉬빌리 대통령이 9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08년에 재선되었음.
- 사카쉬빌리 정부 출범 이후 영토통합을 위해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강경책을 펼침에 따라 2008년 8월 두 자치국의 분리독립을 지원하던 러시아와의 전쟁이 야기됨. 그루지야-러시아 전쟁은 그루지야군이 3일만에 두 자치국에서 철군함에 따라 종전되었으며 이후 양국간 갈등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 회복세 시현

- 그루지야는 2003~07년 중 주요 수출품인 철의 국제가격 상승, 해외근로자 송금유입 증대 및 내수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9.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 8월에 발발한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2008년 하반기 이후 산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되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쳐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하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음.
- 2010년 들어 농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회복되고 철의 국제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며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는 2011년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 등에 의한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루지야는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내수확대 및 국제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 2008년에 10%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며 안정되었으나, 2010년 들어 내수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2011년에는 식료품, 교통비(공공요금 인상) 등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5%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는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약세와 국내 수요 위축 등으로 3.6%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제성장률	12.3	2.4	-3.8	6.4	4.6
재정수지 / GDP	0.8	-2.0	-6.5	-4.8	-2.2
소비자물가상승률	10.0	10.0	1.7	7.1	8.5

자료: IMF 및 EIU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세수는 감소한 반면, 그루지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확대되어 2009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6.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확대됨.
- 2010년에는 정부가 2008년 이후 높아진 실업률과 빈곤율 등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증가율이 호전되고 내수가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GDP 대비 4.8%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개선됨.
- 그루지야 정부는 2011년에도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쟁으로 붕괴된 산업시설의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지출을 확대하였으나, 전체적인 정부의 긴축정책과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대의 영향으로 2011년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2.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대와 정부의 사회복지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인 GDP 대비 2.3%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무역구조의 취약성 보유

- 2009년 기준 그루지야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11.5%), 구리(11.1%), 금(10.3%) 등 1차산품 수출비중이 높아 그루지야 경제는 동 품목의 국제 시세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그루지야의 원유 및 가스 수입비중은 총수입 대비 16.2%로 다소 높아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통화가치 약세 지속

- 그루지야의 라리화는 2007년 이후 미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2008년 7월에는 미달러 대비 라리화 환율이 1.41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8월 이후 러시아와의 전쟁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자금 회수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미달러 대비 라리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게 됨.
- 2008년 연평균 미달러 대비 라리화 환율은 1.49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1.67, 1.78, 1.70을 기록하며 약세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 FDI 유입 부진,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나. 성장 잠재력

□ 망간, 구리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그루지야는 망간 2.2억 톤, 구리 34만 톤, 금 3.7만 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파악됨. 그루지야 정부는 EBRD, 쿠웨이트 정부 등으로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자금을 확보함으로써 대외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에너지 기반조성을 구상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 공급통로로서의 중요성 부각

○ 그루지야는 카스피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그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루지야를 통과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은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 BTC(Baku-Tbilisi-Ceyhan) 송유관: 카스피해 산유국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에서 시작해 그루지야의 트빌리시(Tbilisi)를 거쳐 터키의 제이한(Ceyhan)까지 연결된 세계 최장(1,770km) 송유관으로 최대 100만 배럴/일의 공급능력 보유

- BTS(Baku-Tbilisi-Supsa) 송유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에서 시작해 그루지야의 트빌리시(Tbilisi)를 거쳐 그루지야 흑해 연안에 위치한 스텍사(Supsa)까지 연결된 송유관

- BTE(Baku-Tbilisi-Erzurum) 가스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에서 시작해 그루지야의 트빌리시(Tbilisi)를 거쳐 터키의 에르주름(Erzurum)까지 연결된 천연가스관

- SPC(South Caucasus Pipeline) 가스관: 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터키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으로 2007년 초부터 가동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DI 유입 부진

○ 200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규모가 약 15.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FDI 유입규모가 약 6.5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2010년 중에는 FDI 유입액이 8.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2009년 8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경제위기 진정

- 그루지야는 러시아와의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신뢰가 급락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2008년 9월 IMF로부터 7.5억 달러 규모, 18개월 만기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협정이 체결됨. 이어 2009년 8월에는 IMF가 4.2억 달러의 구제금융 증액을 승인하며 만기를 2011년 6월까지 연장하였음.
- IMF 구제금융 지원조건은 그루지야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환율의 탄력적인 운용, 은행산업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2011년 6월 IMF는 그루지야 정부가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IMF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으며 동 지원이 그루지야의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7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추세

- 그루지야 중앙은행은 국제 식품가격 상승 및 그루지야의 경기회복 조짐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감안하여 2010년 6월 이후 기준금리를 8.0%까지 인상하였으나 2011년 7월 이후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추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현재는 6.5%로 인하한 상태임.
- 2011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루지야 통화당국은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6% 이내로 안정화시킬 목표를 잡고 있음. 그루지야의 2012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통화당국의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그루지야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대외거래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그루지야는 에너지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며, 2008년에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에 따라 GDP 대비 22.6%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급감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1.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축소되었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2,009	-2,915	-1,210	-1,337	-1,489
경상수지 / GDP	-19.7	-22.6	-11.2	-11.4	-10.8
상 품 수 지	-2,896	-3,836	-2,399	-2,587	-2,841
수 출	2,088	2,428	1,894	2,462	3,102
수 입	4,984	6,264	4,293	5,049	5,943
외 환 보 유 액	1,361	1,480	2,110	2,264	2,860
총 외 채 잔 액	3,613	5,664	6,250	7,825	8,524
총외채잔액 / GDP	35.7	44.0	58.0	67.1	62.0
D S R	9.0	13.8	17.7	14.2	22.3

자료: IMF 및 EIU

- 2010년에는 수입증가폭이 수출증가분을 초과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11.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GDP 또한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0.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 증가추세 지속

- 그루지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외환보유액 변동추이: 14.8억 달러(08) → 21.1억 달러(09) → 22.6억 달러(10) → 28.6억 달러(11)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009년에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4.4개월분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외환보유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각 4.1개월, 4.2개월분 수준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 누적으로 외채상환 부담 가중

- 총외채규모는 2009년 62.5억 달러, 2010년 78.3억 달러, 2011년 85.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총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외채상환 부담이 높은 상태임. 또 총외채잔액의 GDP 대비 비중도 2008년 44.0%, 2009년 58.0%, 2010년 67.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다 2011년은 62.0%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9년에 17.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으며 2010년에는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4.2%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외채가 증가하며 22.3%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사카쉬빌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지속

-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2004년 1월 연합국민운동당(United National Movement: UNM)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08년 1월에 재선되었음.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2010년 5월에 실시된 트빌리시 시장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지오르지 우글라바(Giorgi Ugulava) 후보자가 약 55%의 득표로 트빌리시 시장에 당선되었음.

- 2012년 10월 실시예정인 총선에서도 연합국민운동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3년 10월 예정된 대선에서도 집권여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그루지야의 헌법은 대통령의 최대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카쉬빌리 대통령의 3선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오르지 우글라바(Giorgi Ugulava) 트빌리시 시장이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10월 그루지야 의회의 헌법개정안 통과로 차기 대통령의 권력 약화

- 2010년 10월 15일 그루지야 의회의 헌법개정안이 의원 74.6%의 득표로 통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총리 임명권한이 의회의원들에게 이양되었음. 현재 대통령의 권한으로 분류되어 있는 주지사 임명 및 해임 권한은 이번 헌법개정으로 인해 총리의 권한으로 재분류됨.

- 헌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의회의원 및 총리에게 일부 이양됨에 따라 동 헌법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인 2013년 10월에 당선될 신임 대통령은 사카쉬빌리 현 대통령에 비해 약화된 국가 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야당은 동 헌법개정을 두고 집권여당이 사카쉬빌리 대통령의 임기만료와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 유리한 헌법개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음. 동 개정안 통과로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총리임명권은 연합국민운동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야당간 통합이 미흡한 점도 집권여당의 영향력 강화요인으로 작용

- 집권여당인 연합국민운동당의 지배력을 견제하는 국가위원회 블록(구성원: 보수당(Conservative Party), 국민당(People's Party), 평등한 그루지야를 위한 운동당(Movement for Fair Georgia)), 그루지야 자유공화당(Georgia Free Democrats), 그루지야당(Georgian Party) 등 다수의 야당이 구성되어 있으나, 의견차이로 인해 야당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야당간 분열이 심하고 각 야당의 세력이 약해 집권여당의 지배력을 위협하는 수준의 반정부시위는 발생하지 않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실업률은 다소 높은 수준

- 2008년 하반기 러시아와의 전쟁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졌음. 2007년에 13.3%를 기록한 실업률은 2008년 및 2009년 각각 16.5% 및 16.9%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16.3%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도 전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간헐적인 반정부 시위를 초래하였으며, 재정적자 지속으로 그루지야 정부가 실업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를 둘러싼 그루지야-러시아 갈등은 소강상태

- 2004년 1월 사카쉬빌리 정권 출범 이후 영토통합을 위해 그루지야 내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에 대한 강경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친러 성향의 두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약화되지 않음.
- 2008년 8월 8일에 발발한 그루지야의 러시아와의 전쟁은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제압하고자 남오세티아를 공격함에 따라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러시아가 개입함으로써 야기되었음.
-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을 둘러싼 그루지야-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의 총공세로 그루지야군이 3일만에 두 자치국에서 철군함에 따라 종전되었음. 동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종전됨에 따라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에 대한 자국통합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나 여전히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4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두 자치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임.

- 2008년 전쟁 이후 그루지야는 두 자치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강경책은 중단한 상태이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두 자치국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국제관계

□ 러시아와의 관계개선 불투명

- 2008년 8월 그루지야-러시아 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국간 외교관계는 단절된 상태이며, 친서방 성향의 사카쉬빌리 대통령 집권체제가 지속되는 이상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종전 이후 러시아가 남오세티아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교육, 의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통합전략을 펴고 있어 양국의 외교관계 회복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임.
- 한편, 2011년 9월에 그루지야 정부는 스위스의 중재하에 러시아의 WTO 가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와의 양자간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양국간 교역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NATO 회원국 가입승인 지연

- 그루지야 정부는 서방과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해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그루지야-러시아 양국간 전쟁 발발 이후 서방국가들은 그루지야의 NATO 가입승인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 서방국가들은 그루지야의 NATO 가입승인으로 중요한 교역대상국인 러시아와의 마찰이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루지야의 가입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그루지야에 대한 NATO 회원국 행동계획(Membership Action Plan: MAP) 착수승인이 2012년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12.14 (북한과는 1994.11.3)

- 양국간 수교 역사는 짧은 편이며, 체결된 협정은 없음.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했으나 여전히 크지 않은 수준

○ 1992년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1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4,023만 달러(수출 9,918만 달러, 수입 4,105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1년 기준 그루지야는 우리나라의 115위 수출상대국, 107위 수입상대국으로 양국간 교역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해외직접투자 현황(2011년 9월 말): 총 10건, 987만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의 대 그루지야 직접투자실적은 2010년 12월 말 누계기준으로 10건, 987만 달러이며 2008년에 806만 달러(2건)를 투자한 이후 2011년 9월 말까지 신규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한·그루지야 교역 규모

단위: 만 달러

	2008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6,629	3,053	4,868	9,918	수송기계,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수 입	868	1,312	2,982	4,105	비철금속제품, 전자부품
합 계	7,497	4,365	7,850	14,023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그루지야는 2003~07년 중 평균 9.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어 2009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산업생산 증가율 회복, 철의 국제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경상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적자폭은 축소되었음. IMF의 구제금융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그루지야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총외채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규모 비중, GDP 대비 총외채규모 비중 등이 확대되고 있어 외채상환 부담은 가중됨.
- 그루지야는 카스피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유럽시장으로 공급하는 통로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 그루지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 러시아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IMF가 2009년 8월 그루지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승인하며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산업시설 가동이 정상화되고 있음. 또 그루지야 정부의 긴축재정의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등 정부의 정책성고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루지야-러시아 간 갈등은 남오세티야 및 아브하지야 자치국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전쟁 종전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루지야 정부는 NA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책임조사역 황상하 (☎02-3779-5711)

E-mail: hsangha@koreaexim.go.kr